

표지 설명 : 자립 정신의 일면이 유디스 메어의 "가정 원예"라는 이 그림에 묘사되어 있다.

# 성도의 빛 11

198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킵블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헵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테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케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클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멜린 에이치 오크스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랙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 차 례

자립의 해의 영광적 본질.....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내가 인도하겠으나	
운전은 내가.....케이 스티븐 라슨 .....	8
물몬경 간증 .....	10
매일의 경전 공부로	
성령의 감동을 구함.....브루스 티 하퍼 .....	17
질 의 응 답 .....	22
벌치는 사람.....스코프 새뮤얼슨.....	29
성별되어.....프레드 에이 로우.....	33
물과 빵에 관하여.....레어드 로버츠.....	40
심심풀이.....세리 엘 스코트.....	42
영웅들.....비비안 폴슨 .....	43
아큐마와 키바.....린 게스너 .....	46
지역 성도의 간증.....정 광영 형제 .....	50
지역 소식 .....	51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번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의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31호, 제20권 제11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4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김 영 철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518KO PRINTED IN KOREA 11/84

© 1984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International Magazine

# 자립의 해의 영광적 본질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이 기사는 1982년 10월 반연차 대회에서 롬니 부대관장께서 하신 말씀을 요청에 의해 다시 인쇄한 것이다.

나는 모든 기록한 선지자들이 가르치신 단순한 복음 진리를 사랑하며,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때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벌어서 자립하라는 권고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 원리를 것처럼 강조하시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자유 그 자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앨버트 이 보우웬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강압적인 느낌이나 양심의 가책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이웃에서 교회는 능력있는 사람에게 계속 의타심을 갖게

하는 여허한 제도에 대하여 만족해 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움을 준다는 기능이나 임무는 혜택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도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위치로 이끌어 주는 데 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교회 복지 계획, 복음 교리반 교재, 1946년, 77 페이지)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선한 뜻을 품는 사람들에 의하여 수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도와 주는” 근시안적인 목적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능력있는 사람들을 자립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오려 낸 기사를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것을 다시 되풀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급자족하는 능력을 기르고,  
 우리 스스로 창조하는 마음과  
 절약 정신과  
 참으로 독립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니다 :

“우리와 근접해 있는 성 오거스틴 시에서는 수많은 바다 갈매기들이 풍요 속에서 굶어 죽고 있다. 아직도 물고기를 잡기에 호조진인데도 갈매기들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모른다. 수세대를 내려오면서 그들은 새우잡이 배의 그물에 걸린 새우 찌꺼기를 던져 주는 것을 쫓아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배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간 것이다.

“새우 양식업자들은 바다 갈매기들을 위해……복지 국가를 만들었다. 큰 새들은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려 애쓴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새끼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새끼들을 새우 그물로 끌고 갔다.

“자유,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새인 갈매기들은 “공짜로 주어진” 미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굶어 죽어 가고 있다! 그들은 던져진 먹이 때문에 자립심을 잃었던 것이다.

“사람들 중에도 역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미국 행정부라는 “새우잡이 배”의 세금 그물망에서 거리낌없이 쫓아 먹고 있는 것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가 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리석은 갈매기와 같이 되지 말자. 우리는 자급 자족하는 능력을 기르고, 우리 스스로 창조하는 마음과 절약 정신과 참으로 독립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어리석은 갈매기의 우화”, 리더스 다이제스트, 1950년 10월호, 32페이지)

탐내며 수고하지 않고 유익을 얻는 습관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사람조차도 정부가 그들에게 이윤을 보장해 주기를 기대하는 풍조가 정착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흔히 후보자들이 정부 기금에서 투표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으로 약속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이 습관이 어느 사회에서든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져 이행된다면, 시민들이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와 같이 할 권리를 갖는다 해도 정부의 수용소로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현실적 및 영적인 독립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자존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근로 소득과 불로 소득을 구별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에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내의 많은 부모들이 가족의 생계를 실업 수당으로 이어 나감으로써 자녀들을 “우매한 갈매기”로 만들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모의 행위는 정부의 어떤 계획보다도 훨씬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감독과 다른 신권 지도자들도 워드 회원들을 “어리석은 갈매기”로 만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들의 감독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은 어디까지나 실업 수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와 회원들이 자립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부의 사업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가정과 교회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며 생활한다면, 어느 나라 정부의 사업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막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헨리 더 모엘 부대관장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원리는 궁핍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에게 그들이 도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무능력한 사람, 연로한 사람 및 병자는 온갖 정성을 다해 돌보아야 하지만,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여 해낼 수만 있다면, 의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역경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굳은 신앙과 진정한 용기와 확고한 결의와 가슴속에 자립에 대한 애착심이 불붙고 있으며, 자신이 성취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치고 그들의 길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 낼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립심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수단입니다. 완전히 자주적인 인간이라도 다른 모든 바람직한 속성이 부족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자주성에 어떤 영적인 목적이 부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영혼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영적인 것입니다. 1936년에 이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을 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예리하게 관찰한 것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영적인 본질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성은 영혼, 즉 인간에게 있는 신성한 영이 획득하는 지고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모든 창조물의 왕이 되게 하는 지존의 영화로운 은사”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이긴 승리의 자각이며 절대자와의 교제입니다. 인생에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영성 그것뿐입니다.

“그것은 햇빛은 자에게 옷을 주고, 텅 빈 식탁에 풍부한 음식을 차려 주며, 피할 수 없는 태만에서 오는 실망과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활동하게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말한다면,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외견상, 모든 행동은 물질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옷을 수선하거나 짓는 일, 과일 및 야채 통조림, 식품 저장, 주머니 선정 등. 이 모든 것은 엄밀히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모든

행위에 스며들어 있어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성결케 하는 것은 영성의 요소입니다.”(대회 보고, 1936년 10월, 103페이지)

교리와 성약 29편 34-35절에서는 물질적인 것에 관한 계명과 같은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립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립심과 자립심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립심을 상실하는 처지에 서게 될 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도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면, 우리의 행동의 자유가 이내 줄어들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립은 완전한 자유를 행사하는 데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자립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일단 자립하게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비결은 자유로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가진 자는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야곱은 니파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 생각하기를 네 몸같이 하며, 만인에게 친절하며, 너희 재물을 값없이 나누어 저들로 너희같이 부하게 하되,

“너희는 세상의 부를 구하기 전에 먼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지이다.  
“보라,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  
내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느니라.”  
(교성 42 : 29-30)

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야 너희가 구하는 바 부를 얻을 것이요, 선행을 위하여 이를 좇으리니, 험뻑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살려 구제하게 되리라.”(야곱서 2 : 17-19)

경륜의 시대에, 교회가 조직된 지 단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지이다.

“보라,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내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느니라.”(교성 42 : 29-30)

같은 달에 주님은 이 주제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아마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태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방문하여 저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나니.”(교성 44 : 6)

나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께서 명령하시도록 했던 것이 다소 역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 : 39)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받들으로써 우리 생명을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유일하고 참된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살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지상에서 고행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의 생활의 본질입니다.

아, 우리 마음이 순수해져서 이러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도래하는 날은 얼마나 영화로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날이 되면 우리는 헌신적으로 봉사할 때에만 참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므로 명령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고 봉사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자립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자립하지 않으면 봉사하고자 하는 내적인 소망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텅 빈 선반에서 굶주린 자에게 줄 식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빈 지갑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줄 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메마른 곳에서는 아무런 도움이나 이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고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약해서는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는 상호 의존 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베풀어 주는 과정은 가난한 자를 들어 올려 주고 부자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는 중에 양쪽이 다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굴레와 제약에서 풀려 난 가난한 사람은 세속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자유롭게 그들의 온전한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부자는 남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베풀어 주는 영원한 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인간이 일단 온전히 자립하게 되면, 그는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며, 그러한 과정은 되풀이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는 자립하고 있으며 어떤 면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힘을 지니고 있는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 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진실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존심을 앞세워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은 성결케 되는 경험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말씀에서 강조된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복지 사업의 목적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시간이므로 이것은 최후의 날의 사업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의 일상 생활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이러한 진리를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이야기해 봅시다.

롬니 부대관장의 기사를 읽고 나서 가족들은 다가오는 가족 회의에서 다음 원리를 토론할 수 있다.



자립과 다른 사람에게의 봉사를 통해  
우리 생활을 온전케 하기 위한 원리

자립에 장애가 되는  
것

- 게으름
- 거리낌없는 소비
- 계명을 어김

• 가정 비축에 대  
한 무관심

- 가정에서 식품을  
생산하지 않음
- 빚과 이자 지불

• 직업의 숙련에  
무관심함

• 부정적인 태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

- 자신과 직계 가  
족만을 생각함
- 나누기를 두려워  
함

• 재산을 자신만이  
소유함

자립의 수단이 되는  
것

- 근면과 일
- 검소, 절약, 예  
산
-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  
을 지키며 정직  
한 심일조를 바  
침

• 1년분의 식품,  
의류, (가능한  
지역에서는) 연  
료를 비축

• 가정에서 식품을  
생산함

• 빚을 지지 않고  
(가능하면), 재  
정적인 안정을  
폐함

• 직업의 숙련성을  
향상시킴

• 신체의 건강과  
정서적 사회적으  
로 건전한 태도  
를 가짐

다른 사람에게 봉사  
하는 수단이 되는 것

• 다른 사람을 생  
각함

• 가능하면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  
을 나눔

• 후한 금식 기금  
을 바침

• 스스로를 도울  
능력이 있는 사  
람들로 하여금  
의존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과잉  
보호”

• 자신과 가족에게  
만 머물러 있음

• 봉사할 시간이나  
나눌 재능이 없  
다는 느낌

• 스스로를 돕도록  
사람들을 도울  
(다른 사람의 도  
움을 받지 않는  
자립을 키움)

• 자신의 시간과  
능력과 재산을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 바침

• 개인 및 그룹 봉  
사 사업에 참여  
함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  
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자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 교회 가르침과 프로그램은 이 궁극  
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2.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다음  
과 같이 말씀했다. “교회(복지 프로그  
램)에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영적  
인 것입니다. 외견상, 모든 행동은 물질  
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  
다만, 모든 행위에 스며들어 있어 그들  
에게 영감을 주고 성결케 하는 것은 영성  
의 요소입니다.”

3. 자립은 완전한 자유를 행사하기 위  
한 전제 조건이다.

4. 영적인 자립의 열쇠는 다른 사람에  
게 나누어 주고 봉사하는 자유를 행사하  
는 것이다.

5.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의 생활의 본질이다. \*

# 내가 인도하겠으나 운전은 네가



제이 스티븐 라슨

**점**은 나이에 나는 내가 주님의 사업을 돌보면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어디에서 이런 불확실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나에게서는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수년 동안 그런 느낌에 쫓아 충실히 생활했다. 이런 생각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필요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편만한 보호처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사소한 사업상의 실패나 가정에서의 문제, 심지어는 대재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게 했다. 나는 어떤 사업에서 실패하게 되면 “틀림없이 주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셔”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가정에 분쟁의 위협이 닥칠 때는 “정말로 사탄이 우리 가정을 노리는군”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주님이 항상 나를 돌보신다고 생

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기 전에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교성 9:8)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나는 잠깐 기도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때때로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이 일에 있어서 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교회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족을 잃도록 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절대로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자신이 그런 방식을 좇음으로써 사탄이 구세주를 유혹한 그런 영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

어 발이 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리다 하였느니라.”(마 4:6)

마침내 내가 가는 길에 더 많은 “시험”이 닥치고 좌절과 실망으로 끝나게 되었을 때, 나는 자신의 부주의한 태도를 살피기 시작하였다. 나는 경전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책임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자신의 계획과 행위를 완수하며 우리의 길이 올바르다는 그분의 확인을 구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일러 주는 증거가 가득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노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기어 올라가야 하는 계단 즉 성장과 이해의 계단을 따라가는 길잡이다.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자 모든 일에 질서를 세우고 내 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가정의 밤 활동으로써 가까운 산으로 가족을 데리고 드라이브하고 있었다. 우리가 급 커브로 지나가는 동안 가족에게 내가 지난 주에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모두 내가 감독으로서 많은 시간을 들여 일했다는 데 동의하였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였다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마 6:33 참조)

가족들은 처음에는 좀 주저하더니 곧 하나님께서는 경전에 쓰신 대로 그렇게 하실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나는 명랑하게 확신을 갖고 이렇게 대꾸하였다. “좋아, 그렇다면 나는 오늘 힘든 일을 하였고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데 치켰다. 이제 운전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목적지로 데려가

시도록 할 생각이다.” 차 안에서 대혼란이 일어났다. 다섯 아이 가운데 네 명은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넘겨 드리기에겐 신앙이 부족하여 당황하였다. 만 두 살이 된 아이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 딸은 누가 운전하든지 상관하지 않았다. 훌륭한 나의 아내가 나를 향하여 아이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가실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이미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걸요. 운전대를 손으로 잡고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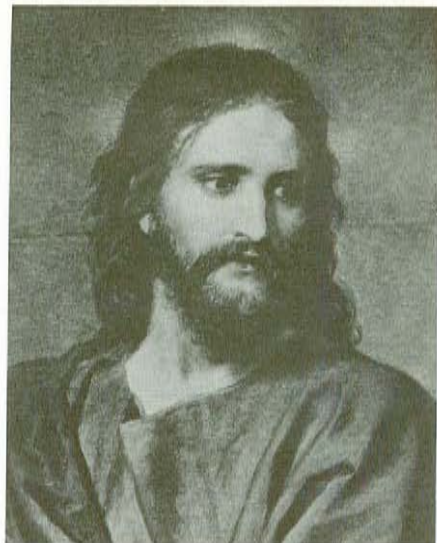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 되고 또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의 일상사에서 판단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명은 될 수 없어. 사실상 우리는 그 주제에 관해서도 더 많은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공과 끝.”

그때부터 우리 생활과 형편이 향상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도 향상되었다. 나는 더 이상 왜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하게 버려 두셨는가에 대한 경전상의 변명으로 약해지는 신앙을 바칠 필요가 없어졌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이해 수준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경전과 현대 예언자와 성신의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우리 대신에 운전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신다. 그분은 그가 계신 곳에 우리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처럼 운전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요 14:3 참조) \*

# 물문경 간증

구세주와 여러 예언자들이 “가장 정확한 책”에 관하여 간증함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에게  
물문경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신중히 연구하여  
스스로 이 책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요셉 스미스)는 그 책, 곧 내가 명한 부분만을 번역하였으니,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같이 그 번역은 참되도다.”(교성 17:6)

“(하나님은) 이전부터 마련되어 있던 도구로 물문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능력을 저에게 주셨나니,

“물문경에는 타락한 어느 백성의 기사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도 전해질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 있느니라.

“이는 영감으로써 주신 것이요, 천사들의 성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확인된 것이니 저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포되어,

“기록한 경전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부르시사 옛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에 자신의 기록한 일을 하게 하심을 세상에 증명하시며,

“이로써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도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느니라.

라……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의를 행하는 자는 영생의 관을 쓰게 되리라.”(교성 20 : 8-14).

“거듭 말하거니와 이 교회의 장로와 제사와 교사들은 성경과 물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 그 책에는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느니라.”(교성 42 : 12)

### 요셉 스미스

“나는 형제들에게 물몬경이 지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교회의 종석이며 다른 어느 책보다도 이 책의 가르침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와지려고 이야기했다.”(교회 정사, 4 : 461)

“나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에 의하여 이 기록을 번역하였다.”(교회 정사, 4 : 537)

“물몬경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신앙으로 이것을 취하여 자기 발에 감추고 마지막 날, 곧 때가 이르는 날에 발아하게 했습니다. 정말 거자씨만큼 작은 싹이 세상에 나와 가지를 치고 높이 자라 거대하게 되고 모든 식물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물몬경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왔고,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와 은사와 천사를 내려 보내시어 그 나뭇가지에 깃들게 하십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96-97페이지)

### 브리감 영

물몬경이 처음 인쇄되고 나서 2-3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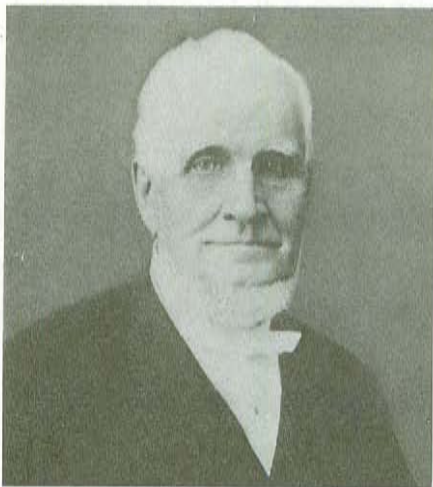


후에 이 책이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 나는 이 문제를 2년 동안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야 이 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가락의 감촉으로 느낄 수 있고 어떤 감각의 기능으로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결코 이 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설교집 3 : 91)

“주님께서서는 물몬경의 내용이 땅속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출판되고 그리하여 세상의 주민에게 그가 아직 살아 계시며 말일에 땅의 사망으로부터 그의 택하



신자를 모으시리라는 것을 땅의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 세기 동안 일해 오셨습니다.”(브리감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우 편, 솔트레이크 시티 : 메저벳 출판사, 195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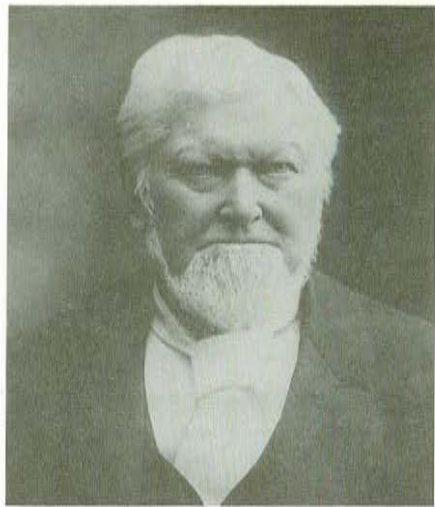
### 존 테일러

“물문경에 수록된 복음과 성경에 수록된 복음은 모두 일치합니다. 이 두 책에 있는 교리는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부분만이 다릅니다. 하나는 아시아인의 역사 또 하나는 미대륙의 백성이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이것은 참되며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설교집, 5 : 240-41)

“자신을 믿지 말고 가장 좋은 책 즉 성경과 물문경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지식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타락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높으신 이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설교집, 12 : 398)

### 윌포드 우드럽

“그렇게 하는 동안(물문경을 읽기 시작하자) 여기에 담겨 있는 기록이 참되



다는 것을 영이 간증하였다. 나는 보기 위하여 눈을 뜨고, 듣기 위하여 귀를 열고, 이해하기 위하여 마음을 열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을 접대하기 위하여 문을 열었다.”(매티어스 에프 카울리, 윌포드 우드럽—그의 생애와 업적의 역사에서 인용,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북크래프트사, 1964년)

“나는 하나님의 영이 물문경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다. 이것은 어두움에서 나오는 빛이며 땅에서 나오는 진리라고 믿었다.”(윌포드 우드럽 일지, 183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음, 교회 동굴 보관소 보관.)

“나는 이 성경과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을 읽으며 이것을 영원한 진리로 생각합니다.……여기에는 이 세대에 대한 영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설교집, 22 : 146, 335)

### 로렌조 스노우

“나는 이 사업(물문경을 포함한 회복)의 진리에 관하여 주님으로부터 가장 강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시현

은 몇 시간씩 강력하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나의 일생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더라도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완전한 지식이 저에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대회 보고, 1900년 10월호)



### 조셉 에프 스미스

“물몬경은 부인될 수가 없으니 이는 이 책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느낌에 있어서나 진리에 있어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교리나 훈계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좋은 사람을 더 좋게 만들어 주려는 의도에서 쫓아지지 않은 훈계나 권고나 꾸중의 말씀이 한 마디도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감의 자취를 담고 있으며 모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영혼에게 확신을 줍니다.”(설교집, 25 : 9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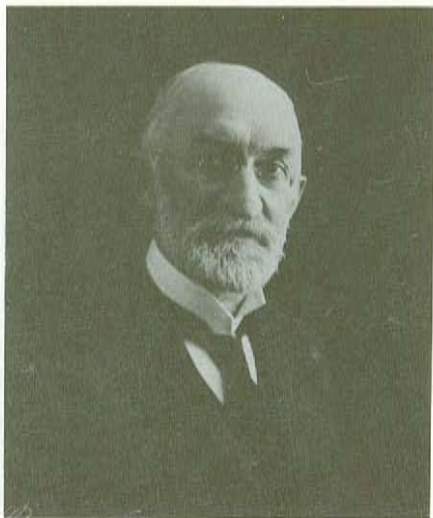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을 읽는 것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 책을 잘 알지 못하고서는 어떤 사람도 이 교회의 유능한 선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더 잘 알수록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조셉 에프 스미스가 그의 아들 조셉 필딩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하이람 엠 스미스 비스콧트 지 케니 편, 예언자가 아들에게 : 조셉 에프 스미스가 선교사 아들들에게 주는 권고,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1년)

### 히버 제이 그랜트

“나는 지난 6-7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몬경을 하루에 약 열 페이지씩 주의깊게 독파하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이 책에서 그렇게까지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있는 구세주의 신성한 사명에 관한 훌륭한 간증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물몬경을 읽을 때만큼 나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감명을 준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물몬경을 읽은 것과 이 책이 참되며 또한 이 책이 참으로 그 주장하는 그대로 미대륙 인디언의 조상의 신성한 역사라는 지속적인 간증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



을 기억하며 또한 자주 그것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였을 때나 청년 시절에 구세주의 신성한 사명에 관한 이 훌륭한 설교를 오늘날처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이 대륙의 백성에 대한 그의 훌륭한 가르침, 엘마와 아빈아다이와 기타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하고 영감받은 가르침. 그러나 나는 소년 시절에 이 책을 읽었다는 것과 이것이 참으로 진리라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과 니파이의 성품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는 것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느낍니다...

“나는 방금 독서를 끝내는 가운데 물문경의 신성함에 관한 더 큰 간증이 마음과 영혼에 들어온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대회 보고, 1924년 4월호, 157-59 페이지)

#### 조지 앨버트 스미스

“물문경은 다른 어떤 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신성한 기록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의 왕국의 거할 장소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게시된 영원한 복음 진리를 그의 모든 자녀와 함께 나누라고 명하셨습니다. ....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문경을 읽는 사람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알게 되리라는 것이 요셉 스미스나 다른 살아 있는 사람들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

“이 두 책(물문경과 성경)은 함께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알려 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찬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권고는 우리가 이곳에서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며 영원한 행복을



만도록 준비시켜 주는 일을 행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대회 보고, 1936년 4월호, 13-16페이지)

#### 데이비드 오 맥케이

“물문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며 지상과 하늘 사이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으며 주님의 참된 길이 지상의 인간에게





게시되었으며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필요한 지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나타났다는 것을 간증합니다.”(인스트락터, 1952년 10월호, 318페이지)

“물몬경은 훌륭한 책입니다. 이것은 회복된 교회의 중요한 주춧돌 가운데 하나입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60년 11월호)

### 조셉 필딩 스미스

“나는 집사가 될 나이도 되기 전에 물몬경을 읽기 시작하였으며 그때부터 늘 읽고 있고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이 교회 회원은 물몬경을 수없이 읽고 철저히 연구하여 이것이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이 담긴 기록이며 거기에 있는 역사가 참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록(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의 가치는 무한합니다……이런 책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훌륭한 지식을 받고 그들과 더 잘 알게 되며 훌륭한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이분들이 우리와 세상에 주신 것으로 이 계획을 받아들이면 이 계획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영시켜 주어 우리가 그 왕국을 충만히 받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물몬경이 참됨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파송된 천사를 통하여 요셉 스미스가 이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았으며 이 천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기록을 끝내고 봉하여서 이 때가 찬 경문의 시대에 나오게 했던



바로 그 천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61년 12월호)

### 해롤드 비리

“성경의 참된 의미를 손상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철학과 성경 구절을 뒤섞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성경이 격하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항상 그의 자녀의 영적인

복지를 염려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론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동반자가 되는 경전을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언자들이 기록하고 이야기한 성경의 진리의 방어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대의 예언자의 가르침과 또한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인간 사이에 살며 가르치신 것의 의미가 둘째 증거에 의하여 좀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 기록한 두 경전을 하나로 하여 우리처럼 이들의 참된 관계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정직한 모든



은 매우 특별한 책을 갖고 갑니다. 잠자고 먹고 기차를 바꿔 탈 때에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저항할 수 없는 매력과 흥미로 완전히 내 마음을 유혹합니다. 이 책을 여러 번 수없이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면 책을 덮고 뒤로 앉아서 그 내용을 되살리면서 거기에 심취합니다. 이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나의 온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나는 이 책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둘째 증거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 책의 신성함을 알리는 진실하고 기도하는 태도의 소망을 갖고 읽는 사람은 모두 확신을 갖게 되리라는 결코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에게 물론경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신중히 연구하여 스스로 이 책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63년 6월호, 490, 493, 495 페이지)

\*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89-91페이지)

### 스펜서 더블류 킴블

“한 가지 큰 모험의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주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하면서 항상 나의 동반자가 되어

# 매일의 경전 공부로 성령의 감동을 구함

브르스 티 하퍼

어느 날 우리 딸 로리가 여자 친구들과 함께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갑자기 그날 해야 할 것을 한 가지 잊은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큰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참, 오늘 경전을 안 읽었구나.” 그의 친구 두 사람도 그날 읽지 않은 것을 깨닫고 물문경을 한 권 빌려서 함께 읽었다.

그렇게 열심히 경전을 읽는 태도는 우리 가정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습관이 아니었다. 아마 경전을 공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교회의 다른 많은 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경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을 시도해서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없었다. 마침내 우리는 경전을 읽는 습관을 키우는 데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인 카블 와이팅이 제안한 방법을 택하였다.

그의 방법은 간단하였다. 그는 매일 무엇인가를 읽는 습관을 그의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 목표는 의식적으로 경전을 집어 드는 태도를 쌓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리 간단하게라도 매일 경전을 읽으라고만 권고받았으며 또한 단 한 구절만 읽더라도 우리가 경전을 읽은 날이 계속 해서 얼마나 되는지 기록하라고 권고하였다.

우리는 이 간단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어떤 날은 몇 구절, 어떤 날은 열 페이지까지 읽을 수 있었다. 경전을 한 장씩 읽을 수도 있고 주제별로 연구할 수도 있었다. 다음 주 주일학교 공과 과제를 읽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수시로 장에 따라 순서대로 읽다가 가끔 경전의 다른 부분으로 건너 뛰거나 어떤 구체적인 주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하루에 한 장(또는 30분 또는

매일 경전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것은  
 우리 일상 생활에  
 성령이 스며들게 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다.

5페이지)을 읽는 이차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었으나 가령 그 이차적인 목표를 항상 달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읽는 한 성공하여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경전을 계속적으로 읽은 날의 숫자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편리하고 유연한 방식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계속된 날짜의 수(예를 들어 10일, 30일, 50일, 100일, 200일, 365일)를 이정표로 확인하고 그 목표에 달하면 가정에서 어떤 상이나 표창을 받았다. 그 상의 횟수나 종류는 참여자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은 비교적 연령이 낮기 때문에 열흘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간단한 음식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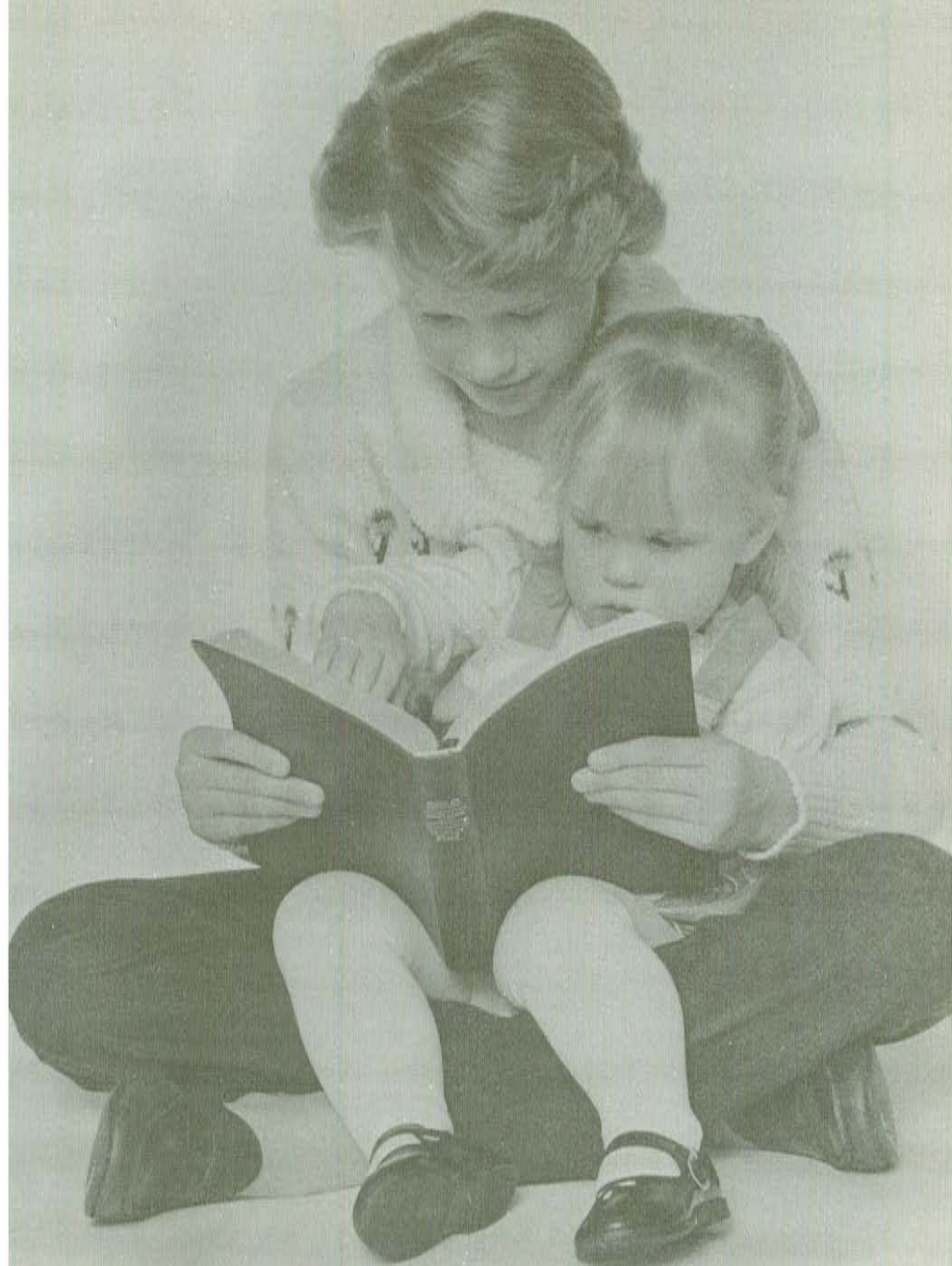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우리 가족에게 경전 읽기를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기를 마련해 주었다. 첫 2년 동안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우리 가족이 함께 경

전을 읽지 못한 것은 단 두 번뿐이었다. 우리 가운데 세 사람은 365일 목표에 성공하였으며 우리 가족 가운데 최고 기록은 장남인 토미로서 446일 동안 계속해서 읽은 것이었다. 그 기간에 그는 만 8세로부터 9세가 되었다. 우리의 큰 아이 로리와 토미는 이제 물론경, 값진 진주, 창세기를 읽고 신약전서도 상당히 많이 읽었다.

물론 이것은 매일 경전에 접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 습관을 키우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전이 우리의 일상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태도를 키우는 것이다.

우리 가족과 기타 매일 경전을 읽는 가족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활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발견한 첫 변화는 경전과 기타 영적인 문제가 우리 생활에서 훨씬 더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하여 훨씬 더 자주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 아깝게 생각하였다. 심지어는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일상적인 계획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내 진과 아이들이 친구를 방문하려고 가까운 도시로 여행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직장으로 나를 찾아오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즈음에는 잠들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경전을 갖고 차 안에서 읽기로 결정하였다.

가정에서 경전을 우선으로 삼게 되자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영향을 받았고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다. 우리는 가족 모두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경전을 읽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우리 가족과  
 기타 매일 경전을 읽는 가족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활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매일 읽기 시작했을 때 둘째 딸 셸리는 만 다섯 살, 아들 데이비드와 리차드는 만 세 살 및 한 살 반밖에 안되었다. 그들은 아무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큰 아이들로 하여금 읽기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경전 이야기 책을 그들에게 읽어 주게 했다. 셸리는 읽는 것을 배운 다음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읽어 주는 것을 몹시 좋아했다. 우리 아이들은 동생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도와 주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라났다.

어느 날 밤 아내 진과 나는 각기 다른 교회 임무로 집을 비웠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경전을 읽을 시간에 충분히 집에 도착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모임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계속되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넘었었다. 아내는 이미 집에 와 있었고 아이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 나는 "경전 읽는 것을 빠뜨렸오?"라고 물었다. "아뇨. 로리와 토미

가(당시 만 열 살 및 여덟 살이었다) 내 가 집에 오기 전에 동생들과 함께 읽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그런 출선의 태도는 전혀 새로운 일이었다.

우리 와드에 사는 데이비드와 루시 켈 부부는 그들의 가정에서 매일 경전을 읽었을 때의 결과를 열심히 설명하였다. 그들의 장남인 스티븐은 이미 물문경을 끝냈다. 딸인 킴은 경전을 장에 맞춰 차례대로 읽지 않고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참조 성구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재림의 주제에서 특히 흥미를 느꼈다.

벤과 루비 앤 스미스 가족은 이미 오랫동안 가족이 함께 꾸준히 경전을 읽고 있었으며 가족이 함께 표준 경전을 다 읽었다. 그리고 매일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을 때 일주일에 경전 읽는 시간을 5일에서 7일로 늘렸으며 어린이들이 훨씬 더 읽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부모가 시키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

로 출선해서 읽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딸 조디는 이미 365일 목표를 통과하였다.

어떤 와드에서는 청년 캠프 활동 시간에 소녀들이 거의 잠들려는 순간 이런 음성이 들렸다. “참, 오늘 경전을 읽는 것을 잊었어.” 그러자 또 다른 음성이 다시 “나도 잊었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똑같은 음성이 들리고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였다. 아무도 경전을 갖고 올 생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도자와 소녀들이 경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했다. 이것은 기념할 만한 경험이었다.

매일 경전을 읽는 사람들은 경전에 관한 지식이 증진되는 이외에도 개인적으로나 가족 단위로 성령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딘 클레벌리츠와 그의 가족들이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 동안 만 7살이 된 딸 제베카가 “정말 지금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하였다. 가족이 이렇게 강한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토론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도 성령을 가까이 느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 와드의 어떤 가족은 매일 가족이 함께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가족 기도를 시작하고 정구적으로 가정의 밤을 갖기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성령의 역사를 더 크게 느끼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함께 매일 경전을 읽음으로써 가족의 단합과 조화가 커지는 것을 깨달았다. 경전을 읽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해결책을 찾으며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칠 귀중한 기회가 생겼다. 가족이 읽는 동안 각자 자기 생활에서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었으며 조화와 사랑의 영 가운데서 소중한

우리는  
가족 모두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경전을 읽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 토론을 하기가 더 쉬워졌다. 복음 원리와 경전 이야기가 저녁 식탁에서 빈번한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다.

매일 적어도 몇 구절씩 읽음으로써 그렇게 하는 사람의 생애에 놀라운 축복이 올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한 카블 화이팅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매일 경전을 공부한 결과 저의 생애에서 일어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으며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일상 생활에 성령이 스며들게 하는데 힘이 될 수 있다. \*

다섯 자녀의 아버지인 브르스 티 하퍼는 교회 선교사와 선교사 자원 책임자이며 솔트레이크 버틀러 웨스트 스테이크의 버틀러 18와드 복음 교리반을 가르치고 있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질문:** 나는 이 교회가 참되다고 생각하지 만 가끔 의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대답:** 조지 디 듀란트, 솔트레이크 마운트 올림퍼스 스테이크, 마운트 올림퍼스 3와 드 감독.

형제님은 모든 질문 가운데서도 가장 의미있는 질문을 하셨으며 해답을 찾고 싶어하는 진실한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주제에 관하여 토론한다고 가정할 경우, 맨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형제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찬 분위기와 진리의 영 가운데서만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이시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 영혼에 밝혀 줄 수 있는 영적인 절차를 토론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마가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었습니다. (앨 32:28-43 참조) 그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기에 충분할 만큼 믿을 수 있다면 참으로 그런 말이 참된 것인지 알기 위한 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한 장소를 허용하는 것을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만일 그 씨앗이 좋은 것이고 우리의 불신앙이나 주님의 영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 의하여 버림받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부풀어 오를 것이며 이로써 이것이 좋은 씨앗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리를 연구하고 헌신하고 태도를 바꾸고 혹은 봉사함으로써 우리 속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 성장과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면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 의하여 우리가 생각하거나 행한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나무를 잘 가꿀 때 그것이 계속 발전하여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 주고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 대한 물이 될 것입니다.

형제님의 질문에 대하여서는 엘마의 대답보다 더 좋은 것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효과가 있으리라고 말한 방법이 분명히 효과있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영적인 봄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거나 바꾸어야 할 방식대로 바꾸거나 도와야 할 방식대로 바꾼다면 우리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부풀고 성장하여 우리의 영혼에 참으로 좋은 열매를 가득 채워 주어 우리가 그 실재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는 마치 봄이 점차적으로 오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단지 우리가 발견한 시간을 확실히 모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부와 봉사와 기도로 그 부드러운 나무에 영양을 주면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이 뒤따르게 되며 우리에게는 충분한 수확을 가져다 주는 강하고 부정할 수 없는 간증

이 생깁니다.

나는 젊었을 때 영혼의 흙을 갈아 놓았습니다. 마음속에 기도의 씨앗을 심었으며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과 기타 교회 업무를 행함으로써 봉사의 씨앗을 심었으며 그런 행동에 기쁨이 있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성장을 느꼈습니다. 십일조를 냈으며 저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과 그 이외의 생각, 느낌 및 헌신으로 인하여 그 이전에 심었던 어떤 씨앗보다 더 강한 씨앗을 심은 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감독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내가 선교사



로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다음 나는 그의 사무실을 떠나서 곧장 그때 일하고 있던 주유소로 가서 주인에게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좋아. 좋은 훈련이지. 좀더 음성을 높여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집에 올 때는 훨씬 더 자신이 생길꺼야.”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교회에 서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고는 말하지 말게. 그것은 알 수가 없거든. 그런 말올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그들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몰라.” 그때 나는 우리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안다고 그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교회가 참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가장 풍성한 수확은 선교사로 영국에 도착한 지 약 2개월 후에 얻었습니다. 첫

몇 주는 몹시 어려웠으며 향수에 잠겨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헐 지방부에서 다른 일곱 명의 선교사에게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마음속에 심어 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처음에 나의 메시지는 단순한 말에 불과했으나 곧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영혼 안에서 큰 기쁨이 부풀어 올라 전신에 가득 차는 것을 느껴 말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거룩한 숲을 볼 수 있었으며 요셉 스미스를 볼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것이 좋으며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가 참되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전의 그 주인 앞에서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의 마음속에서 자란 진정한 수확을 부정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제님의 경험은 그 과정에 있어서 저와 같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영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새로 심을 시기인 영적인 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심지 않는다면 그들의 수확은 빈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씨앗을

심이라고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요 7:17).

김불 대관장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선교사로 나가고, 신전에서 절혼하고, 십일조를 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며, 속이지 말고, 옳지 않다고 알면서 행하고 있거나 자신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씨를 심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완전해져야 할 필요는 없으나 완전해지고자 하는 열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베나민왕의 연설을 듣고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며 계속하여 선행을”(모사 5:2) 한 니파이인들같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과 또 선교 사업 초기에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열렬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 사업을 하고 여러 해가 지난 후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장로 한 사람이 와서 이 교회가 참된지 모르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그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말로 그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간곡히 타일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집으로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여로 인하여 장로님은 자신이 찾는 대답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씨앗을 자신의 마음에서 쫓아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겠다. 교회가 참된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머물러 있는다.’” 요약해서 나는 그 장로에게 그의 마음에 심을 씨앗은 남아서 봉사하겠다는 헌신의 씨앗이며 성장할 추수는 맛있는 간증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완전히 이 사업에 몰두하여야 합니다. 이 교회가 참된다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형제님이 최소한 참여를 시킨 것은 나타냅니다. 이제 확신을 갖기 위하여 완전히 몰두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여하기 전에 이 복음이 참된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아무 대가없이 노력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경우에는 먼저 참여해

야 했으며 그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님도 자신이 찾고 있는 해답을 얻기 위하여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두 시도해 보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좀더 노력하십시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참여하고 주님에게 이것이 올바른지 구하여 보십시오.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앉아서” 주님에게 간증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행하고” 주님에게 간증을 부탁드리십시오. 낮을 대십시오. 그러면 배어 낼 영적인 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배어 내기 시작하기 전에 밀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갖고 믿으십시오.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기 위한 영적인 탐구에서 성급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부드러운 어린 나무를 잡아당겨서 다 큰 나무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확실히 자라게 하십시오. 산기슭을 기꺼이 기어 오르려는 마음이 없이 산꼭대기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이라는 나머지 피륙은 짜지 않고, 앉아서 영성이라는 피륙만 짤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길을 벗어나거나 끝없이 긴 기도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봉사 사업을 찾기 위하여 먼 땅으로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서 기도하고 가면서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좀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자신이 세상의 어떤 곳에 있는지 그곳을 좀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십시오. 영적인 씨가 자랄 수 있는 따뜻한 토양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형제님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 친지를 대하는 방식,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방식입니다.

인생의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앞을 보기에 충분하도록 고개를 높이 들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이 들지는 마십시오. 자주 기도드리고 감사와 헌신의 말씀에 자신의 질문과 소망과 바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확인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간단히 포함시키십시오.

봉사하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손을 뻗치사 어루만지실 것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요셉 스미스가 진실로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를 보았으며 물문경이 참되며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성신이 형제님의 영혼에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의 회복된 교회의 신권에 의하여 집행된 거룩한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지고 해의 왕국의 지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완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어렵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참여하십시오. 씨앗을 심으십시오. 영양을 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가까운 장래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자유롭게 알게 되고 자신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형제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진실로 자신의 영원한 미래의 문을 열어 줄 열쇠입니다. 그 찾으시는 것은 진실로 값진 진주이므로 현재 갖고 계시는 것을 모두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



질문: 가정 복음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후임 동반자를 격려하고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대답: 에이치 캔트 래플리, 아리조나 템피, 신학 연구원

**아**론 신권 소유자인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를 잘 가르치면 가정 복음 교육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

여 경험있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후임 동반자가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하고 효과적인 한 부분이 되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의미깊은 참여를 통하여 성장하게 해주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임 동반자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 후임 동반자에게 공과의 일부를 가르치게 하십시오. 물론 그에게 성도의

벗을 주고 “형제님이 가정 복음 교육 메시지를 전할 차례입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반자로서 참여하여 공과를 가르치십시오. 서로 똑같은 가족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할 메시지를 각 상황에 적합하게 만들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2. 후임 동반자가 가족의 생일 및 기타 특별한 날 즉 침례, 명절, 졸업, 결혼 기념일 등을 기억하는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축하 카드, 음식, 비싸지 않은 선물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일을 맞은 어린이를 공원이나 운동 경기나 영화관에 데리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독신 부모나 노인을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작업을 도와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카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3. 물론 특별한 날만이 담당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의미있는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후임 동반자에게 보여 주십시오. 예를 들면 미망인이나 독신 부모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집안 일이나 수리에 경비를 지출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함께 마당을 손보거나 부서진 창을 고쳐 주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할 경우에는 후임 동반자가 자신이 속한 신권 정원회로 하여금 이 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가정에서 어린 동생을 보살피는 일에 잘 훈련된 소년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부모가 신전에 가거나 계보 사업을 하거나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후임 동반자가 어린 아이를 돌보아 주겠다고

(물론 무료로) 제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정기적으로 신전에 참석하거나 다른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기 위하여 월례로 배풀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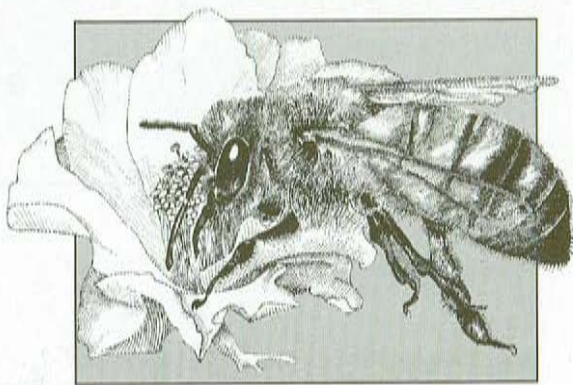
5. 후임 동반자가 자신의 재능과 취미를 가족과 함께 나누도록 격려하십시오. 어쩌면 그가 목공 일을 좋아하여 그 가족이 가구 만드는 법을 배우게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운동이나 음악이나 미술을 좋아하여 어린이들이 그런 기술과 자신감을 발전시키게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6. 자신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의식을 배풀도록 부탁받았을 때 가끔 후임 동반자를 불러서 함께 메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가 아론 신권을 갖고 있다면 실제 의식에는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경우에는 기름부음 의식을 하기 전에 그가 기도하도록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신앙과 기도를 보고 또한 자신의 신앙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런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시간을 두고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담당 한 가족이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후임 동반자가 선임 동반자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후임 동반자가 여러분이 방문하는 가족의 자녀에 대한 자신의 모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의하여 합당한 복장을 하고 일시적 유행이나 친구들의 유희와 압력을 피하며 적절한 영화 및 유희를 선택할 때 오는 유익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 벌치는 사람

스코프 새뮤얼슨



신권회 개최 순서에서 감독님이 우리 교사를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가정 복음 교육 선임 동반자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런 변화에 따르는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나의 새로운 동반자는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당을 떠났다. 나는 와드에서 젊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 장로의 동반자로 정해졌으면 하고 생각하면서 복도를 따라 걸어 내려갔다. 복도를 따라 문이 열려 있는 여러 교실을 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부름을 성취하려고 하는 힘있고 영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복도의 끝에는 대제사들이 모임을 갖는 상호부조회 방이 있었다.

제단을 올라가려고 돌아서 그 방을 들여다보았는데 한 노인이 거의 넘어가 다 된 회색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 앉아서 손짱지를 끼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둥근 금속테의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얼굴은 햇볕에 타서 꺼칠꺼칠하게 보였다. 그 형제님을 전에 본 적이 있었으나 이름은 몰랐다.

그리고 그 순간에 바로 이 형제님이야말로 내가 동반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전형적인 분인 것같이 생각되었다. 나는 혼자서 제발 이 형제님은 아니기를 하고 말했다. 이분은 너무 연로하신 것으로.

이층에서 교사 정원회 고문이 나에게 올리버 존슨 형제가 동반자가 된다고 하셨다.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몰랐으나 곧 둥근 안경을 쓰고 회색 옷을 자주 입는 나이 많은 대제사로서 벌치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바로 그분이었다. 바로 일본 전에 일층에서 본 그분이었다. 정말 실망하였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리화해 보았으나 조금도 실망이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힘있는 젊은 사람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지지만 했다.

나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가 되고 싶어하였으나 이 연로하시고 걸음과 말씨가 느린 형제님의 동반자로 지명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특히 그때

그분의 운전에 대하여 얼마나 비판적이었던가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운전 터허증을 발급받고 있던 과정이었으며 나보다 운전술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존슨 형제님과 동만하였을 때 그는 20년이나 된 낡은 차를 타고 오셨다. 그 낡은 차를 타고 그가 속도 제한보다 훨씬 더 느리게 운전하는 것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면서 천천히 또 꾸준히 말씀하셨는데 아마 나의 조급하고 내키지 않는 마음 즉 나의 젊음을 알고 계신 것 같았다. 우리가 매달 담당 가정을 방문하는 동안 그 회색 옷과 낡은 모자가 다 된 낡은 모자를 쓴 분의 경험이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신과 부인이 선교사로 부름받고 일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선교 사업을 하다가 부인이 돌아가셨으나 이분은 부인의 장례를 마치고는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부름을 완수하셨다.) 그는 인디언의 길, 자신이 키우는 벌, 또한 다른 시대에서 나오는 것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의 비판적인 마음이 사라졌다. 그 천천히 운전하는 것이 더 이상 짜증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이야기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 그의 낡은 차, 우수운 안경, 낡은 모자, 우리가 깨진 포켓트용 시계 등이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다. 마치 그분이 더 젊어지고 내가 더 늙어진 것같이 느꼈다.

우리가 한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존슨 형제님이 양봉업자로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다. 어느 초여름 날에 그가 나에게 전화로 벌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계곡으로 올라가





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나에게 같이 가고 싶으냐고 물으셨다. 우리는 천천히 계곡으로 차를 타고 갔으며 그는 어떻게 해서 벌을 치기 시작하였으며 벌이 꿀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도와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포장 도로를 벗어나서 먼지가 많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개울을 건너갔다. 때때로 나는 차에서 내려 양 울타리의 문을 열고 존슨 형제님이 차를 물고 통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다시 차를 타곤 했다.

우리는 마침내 벌통이 있는 곳에 왔다. 그는 나에게 낡은 베일을 주었는데 이것은 내 얼굴을 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테로부터 그물이 쳐져 있는 모자였다. 그는 소매가 긴 셔츠의 손목 단추를 꼭 잡으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긴 소매 옷을 입고 와야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소매 둘레를 꼭 잡아매고 고무줄을 주었다. 바짓가랑이 꿀을 양말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하셨다. 존슨 형제님은 자신도 그렇게 하면서 만일 벌이 소매나 바지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빠져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겁을 내서 쏘게 된다고 하셨다. 나는 그가 장갑을 끼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가 벌을 억제하기 위하여 연기 뽑는 것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자주 벌에 쏘이는지 물었다.

“그럼, 가끔 쏘이지. 주로 벌이 놀라거나 낯선 사람을 보면 쏘지. 또는 사람이 부주의한 행동을 하면 쏘단다. 또 벌이 갈리면 쏘단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쳐다보셨는데 그 찌그러져 가는 베일 밑에서 그의 밝게 빛나는 눈과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의 순간적인 미소가 보였다. 존슨 형제님은 벌통의 뚜껑을 열고 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연기를 뽑어 넣는 일을 천천히 조직적으

로 조심스럽게 하셨다. 벌 몇 마리가 그에게 와서 장갑도 안 낀 손에 기어 올랐다. 어떤 벌은 귀찮게 그의 얼굴 주위를 빙빙 돌았으나 그는 한 번도 움추리거나 쫓아 내지 않았다. 나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보고 있었다.

나는 존슨 형제님이 무엇이 잘못 되었으며 왜 어떤 벌통은 꿀을 내지 않는지 알고 있고 또 문제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것을 보고 감탄하였다. 그는 그날 꿀을 따지는 않았으나 꿀을 딸 때 나에게 좀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나에게 벌집을 썬어서 꿀을 빨아내고 밀랍을 빨아내라고 하셨다. 그는 이렇게 하면 자신이 먹기 위하여 일해야 하기 때문에 꿀만 먹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좋다고 하셨다. 나는 그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몰랐다. 그러나 한 번 시도해 보고는 곧 알 수 있었다.

몇 년 후 선교사로 일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신문 기사의 스크랩을 침부한 편지를 보내셨다. 그 신문 꼭대기에는 나에게 벌과 또 연만하신 분의 어떤 특별한 것 또 그 이상의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던 분의 사진이 있었다. 그 사망 기사 사진에 나온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생명이 없었으며 처음 그의 얼굴을 본 기억이 그 상호부조회 방에서 본 얼굴과는 다르게 보였으나 그날 그 계곡에서 벌치는 베일 속의 얼굴과는 훨씬 더 다르게 보였다. 나는 바울처럼 “사망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5)고 질문할 수 있었으나 이 신사, 이 형제님의 서거에 애석함과 슬픔의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그 벌이 만들어 내게 해준 그 풍부하고 단 꿀, 나에게 스스로 썬어서 밀랍을 빨아내라고 준 그 꿀에 대한 추억이 내 마음을 달래 주고 있다.



# 성별되어



프레드 에이 로우

여러분은 구름 위로 올라가서 구름을 내려다 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위에서 구름을 보면 밑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구름이 파도처럼 쌓인 모습이나 깃털같은 모습 또는 무섭고 어두운 비구름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이 움직이고 구름이 일시적으로 만든 지붕 너머로 푸른 하늘이 훑겨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름 위로 올라가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특히 해발 일만 오백미터나 올라가서 달리는 제트기의 창문을 통해서 보면 정말 신기하게 보입니다. 마치 산과 계곡같이 보입니다. 간간히 강과 시냇물처럼 구름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름에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땅에서 높이 솟아서 날으면 위로는 푸른 하늘만 보이며 햇빛은 여러분의 밑에서 이 구름에 반사되어 저 구름이 부딪혀 반사됩니다.

흰 구름 사이의 틈이 자주 보이며 하얀 틀같이 생긴 틈 밑으로 수 킬로미터씩 강이나 고속 도로가 언뜻 보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회색, 파란색, 붉은색 지붕이나 노랑, 초록, 갈색이 대조가 되는 들이 어린이의 화판 위에 그린 천연색 비모꼴같이 보입니다.

구름 위에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감독단이 아론 신권

및 청년 프로그램에 수천 명의 젊은 지도자를 성별합니다. “성별”받는 것은 구름 위로 전혀 다른 곳을 날아가는 것과 사뭇 흡사한 점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영감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나이로 지도자가 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나머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사물을 다르게 보아야 하며 다른 수준에서 분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복음의 회복을 위한 예언자요 지도자가 되도록 선택받은 점은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문하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여호와를 소개하실 때 현재의 교사 정원회 회장 연령으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교회에도 가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요셉은 다시는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길은 위험한 길이었고 희생적인 봉사가 요구되었으며 그가 봉사한 사람들로 부터 오직 사랑과 충성심이 요구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도록 영원히 “성별”되었습니다. 그는 인생과 이웃에 대하여 새롭고 더 높은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라는 부름은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변화할 기회도 부여합니다. 이제 자신의 동료들을 자신의 영적인 책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때 참여하기만 했던 활동을 이제 자신

이 계획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고문과 감독단은 이제 여러분의 동업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광고를 듣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로서의 행동을 하기 위하여 지도자로 “성별”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현재의 부름에 대하여 미리 경고를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도자의 경험은 부족한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을 지도자로 생각해 본 적이 한번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성공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여기기 위하여 자신을 효과적이고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지도자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신약전서에는 새 포도주를 낚은 부대에 넣지 못하고 낚은 옷에 새 천을 꿰매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름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장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신화를 버리십시오. 여기 너무도 분명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바로왕의 궁전에서 살고 그 다음 40년을 사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막중한 지도자의 역할을 맡도록 주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으며 80년의 준비가 끝나고 그 거룩한 산에서 부름을 받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누구관대……가며……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 3: 11, 4: 1, 10).

에녹은 자신의 자아상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힘있고 사랑받는 예언자가 되었으며 그의 봉사는 너무나

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읍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으므로 그들을 하나의 사회로서 주님의 품으로 데려갔읍니다. 에녹은 그의 이웃의 자연스럽고 인기있고 힘찬 성품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읍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고 너무나 놀라서 주님께 이렇게 여쭙았읍니다. “내가 주의 눈에 들음이 어쩐 연고이니까? 저는 나 어린 자요, 말을 더디한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오니, 이러하고서도 내가 당신의 종이오니까?” (모세 6: 31).

감독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정말 영감을 받으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과 자신이 책임을 지명하여 정원회 회원이나 반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젊은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상기시키사 용기를 북돋아 주셨읍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 4: 11-12) 주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자 에녹은 용기를 얻었읍니다.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나아가 행하라. 그 어느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져 내가 말하게 해주리라. (모세 6: 32) 주께서 에녹과 모세를 위하여 해주신 대로 틀림없이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름받고 지지받고 성별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동과 동기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그분은 새는 그릇에 물을 채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하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간단하지만 이것을 통달할 때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극대화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을 통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획.

계획 실행을 기억함.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함.

전체를 파악함.

다른 사람을 참여시킴.

모임을 인도함.

효과를 평가함.

### 계획

여러분이 담당하는 정원회 회원이나 반원들이 그들 자신의 기대보다 더 잘하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이 기대가 분명하고 간결하면서도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인기있는 책의 제목에서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아마 다른 곳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1. 자신의 목표나 신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 이 목적은 합리적이며 유익합니까?
3.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4. 어떤 사람, 돈, 시간 등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5. 언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까?
6.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제한이 필요합니까?

### 계획 실행을 기억함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계획은 한갓 소망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자

기 일을 할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 그들을 부르고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1. “해야 할 것”을 적었으며 그것을 자주 다시 봅니까?
2. 모임이 끝나는 즉시 그 모임에서 토론된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까?
3. 사람들에게 주중에 전화를 해서 그들의 활동이나 지명을 다시 일깨워 줍니까?

###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함

시간이 부족하다는 따위의 일은 없습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할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세상에서 누구든지, 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보화인 시간을 하루에 24시간씩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1. 우선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까?
2.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을 제거해 놓았습니까?
3.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시하고 계획한 그것을 위하여 노력합니까?
4. 지명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이 일에 참여하게 합니까?

### 전체를 파악함

“아, 이제 알겠다.”라는 것은 좌절을 끝내고 사람이 자신을 갖고 자기 길을 가게 하는 위대한 발견입니다. 자신이 맡은 정원회나 반을 참여시키고 싶으면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떻게 전체 계획에 맞아 들어 가는지 알게 함으로써 그런 발견을 할 가능성을 더 크게 하십시오. 그들이 활동의 가치와 결과 및 활동과 다른



이상이나 목표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십시오. 계획에 대한 시야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1. 여러분은 감독과 고문이 갖고 있는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2. 어떤 지명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임무가 왜 중요하며 그것이 전체 프로그램에 어떻게 맞아 들어 가는지 설명해 주니까?

### 다른 사람을 참여시킬

성공하려면 책임을 위임해야 합니다. 위임함으로써 자신이 좀더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십시오. 항상 계획할 때 그 계획을 수행할 사람을 포함시키십시오. 다른 사람이 각자 지명받은 일을 수행하고 성공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룹 내의 모든 사람에게 공헌할 기회를 주고 또 성공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힘을 키워 주고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 얼마나 자주 이렇게 자문하십니까? "이것은 반이나 정원회에서 다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2. 지명할 때 그 일의 목적, 가치, 시간, 범위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니까?

3. 한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유연한 태도를 갖고 결과를 바라며 기다립니까?

4. 일을 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이용하며 진행 보고를 부탁하니까?

5. 다른 사람에게 지명한 것이 끝날 때 그들이 한 일을 보고할 시간을 주니까?

### 모임을 인도함

일과 모임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므로 모임을 제한하고 효과적으로 만드십시오.

모든 모임을 할 때마다 계획하고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것을 고려하고 그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십시오. 모든 모임에는 목적과 결론이 있어야 하며 그 사이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 여러분은 잘 정리되어 있으며 회의 일정을 갖고 있습니까?

2. 모임을 인도함에 있어서 자신과 열성을 갖고 있습니까?

3. 반에 참석한 사람들을 환영할 때 참석한 중요한 사람들을 특별히 소개하니까?

4. 지난번 모임과 지명을 다시 상기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낭독하니까?

5.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해줍니까?

6. 다른 사람의 느낌과 의견을 존중하고 채택하니까?

7. 참여하는 사람에게 감사드립니다니까?

8. 모든 사람이 분명한 개념과 기대를 갖고 떠납니까?

9. 교사나 연사에게 시간을 넘겨 줄 때 그를 소개하면서 적절한 열의와 유모어와 칭찬을 활용하니까?

10. 여러분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의 훌륭한 대표자입니까?

### 효과를 평가함

효과적이고 간결한 계획은 평가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럴 경우에 할 일은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뿐입니다. 달성된 것을 분석한 다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분야에 집중하십시오.

1. 우선 목표가 실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2. 진행된 것에 만족합니까? 또한 달성된 것이 반아들일 만한 것이었습니까?

3. 다시 할 수 있다면 달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4. 도움을 받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로서의 기술을 통달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공하려면 자신이 누구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단지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그의 자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

다.

지도자로서 자신의 부름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 훌륭한 기회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 용지의 교회 직책을 기록하는 칸에 "일반적인 지도자 직책"이라고 쓴 어떤 젊은이의 그런 생각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 일반적인 지도자 직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감독관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을 성별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더 높은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위하여 구름 위로 머리를 올릴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주님의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

# 물과 빵에 관하여

래어드 로버츠

그 날은 이른봄, 처음으로 따뜻했던 날이었다. 우리 교회 창문이 그해 처음으로 열려 있었으며 밝고 따스한 햇볕이 길게 예배당 안을 채우고 있었다. 창문으로 가벼운 봄바람이 보이지 않는 꽃의 향기를 싣고 들어왔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 명의 삼촌과 숙모가 자랑스럽게 우리 부모님과 함께 앉아 계셨다. 나는 집사들과 함께 예배당의 앞줄에 앉아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성찬을 전달하는 날이었다.

성찬 찬송이 끝났다.

감독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우리는 함께 일어나서 성찬대로 걸어갔다. 흰 성찬보를 걸어서 조심스럽게 접고 기도문을 읽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말씀과 의식의 중요성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꼈다. 나는 친척과 또 모든 청중이 나를 지켜 보고 있는 것을 느끼며 가능한 한 최고로 경건하고 품위있게 전달하려고 애썼다. 성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강한 긍지를 느꼈다. 이것은 큰 명예였다. 모임이 끝나자 우리 와드의 거의 모든 사람이 축하해 주었다.

수 개월이 지났으며 그동안 나는 우리 정원회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신권을 소유하고 성찬을 전달하는 영예를 조금씩 잇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의식이 상징하는 뜻을 차츰 기억하지 않게 되었



다. 성찬 전달이 집이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 다른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 진 일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런 태도가 우리가 의식을 수행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작은 차이였다. 우리는 가끔 성찬식에 늦게 갔다. 때로는 성찬식에 입어야 하는 합당한 부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임 중에 이야기를 하였다. 큰소리도 아니었고 성찬 의식 중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으나 주의를 끌기에는 충분하였다. 이런 일은 작은 일들이었으나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맡은 책임의식의 신성함으로부터 멀어졌다.

감독님이 우리 고분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도록 부탁하셨



우리는 놀랐고 호기심도 생겼으나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일에서 해방되는 것이 기뻐다. 우리는 늘 하듯이 모임에 늦게 와서 찬송 중에 들어와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원래의 집사의 자리에는 우리 고문과 함께 우리 와드의 대제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우리 와드에서 가장 연로하고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었다. 그중 두 분은 감독 또 한 분은 스테이크 부장을 하셨던 분이었다. 모두 명예로운 지도자 직분을 맡고 있거나 과거에 맡았던 분들이었다. 찬송이 끝났다. 그들이 일어서자 축복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행동과 경건한 태도에 의하여 그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굉장한 존경심과 영예를 느끼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그들은 모두 검정 옷,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복장이나 의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행하는 방식 이상의 것이 있었다.

침중은 조용했다. 성찬이 매우 깊은 느낌을 주는 성스러운 것이 되었다. 좀더 깊고 훨씬 더 의미깊은 어떤 것이 있었다. 거기에는 영이 있었다. 말보다 더 깊은 느낌이 있었다.

그 주일에는 예배당 창문이 열려 있었다.

늦은 가을이었으며 가을의 향기가 창문을 통하여 들어왔다. 푸른 하늘이 점점 보였다.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겸손하게 되었다. 성찬을 전달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스러운 신뢰로써 나에게 주어진 일이었다. 그것은 가장 큰 영예였다. \*

다. 고문은 여러 주 동안 일요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신권과 성찬 의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쓰셨다. 그는 우리에게 아론의 아들들, 깃세마네 동산, 갈보리 언덕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는 나이드신 분으로서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에 관하여 진실로 강렬한 느낌을 갖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품행을 개선시키곤 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다시 이전의 행동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어느 일요일 신권회가 끝난 다음 우리의 고문이 우리를 가로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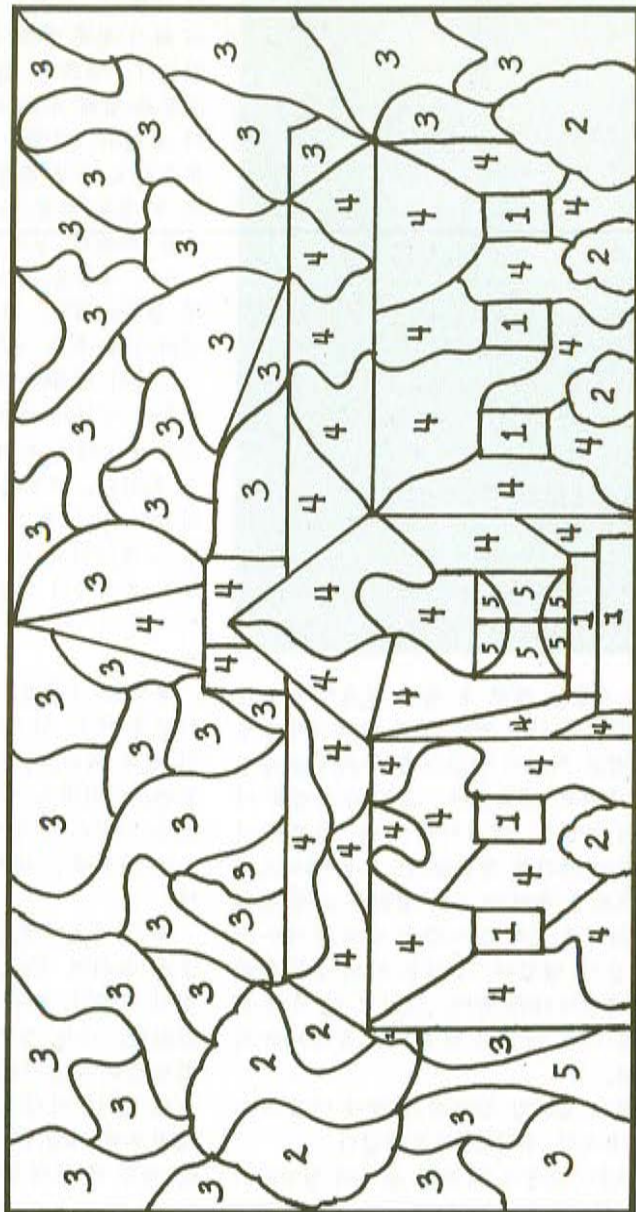
그는 "오늘은 성찬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좋아. 다 초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 특별한 집

세리 엘 스코트

다음 지시에 따라 각 부분에 색칠을 하여  
어떤 특별한 집인지 알아봅시다.

- 1-노란색, 2-초록색, 3-푸른색,
- 4-붉은색, 5-갈색.



# 영웅들

비비안 폴슨

처남 매부 사이인 헨리 아이링 형제는 “스펜서는 바로 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였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제12대 교회 대관장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며 의를 택하며 자기 주위 사람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해 왔다.

어느 날 그가 어떤 와드를 방문하여 단상에 앉아 있는 동안 앞줄의 다섯 소년이 동시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동시에 다리를 꼬았다가 얼굴에 손을 갖다 대고 다리를 다시 풀고 팔장을 끼는 것이었다. 얼마 후 킴블 대관장은 그들이 자신을 흉내내어 무엇이든지 자신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언제나 의로운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가 평생 동안 특별히 사랑하고 봉사한 사람들 가운데 한 그룹은 리하이의 후손들이다.

킴블 장로는 194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언제부터 리하이의 자녀를 사랑하기 시작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후의 수년 동안 나의 부친께서 인디언 구역의 인디언 사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셨기 때문

에 날 때부터 그런 사랑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부친은 선교 부장이었습니다. 부친이 흔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인디언 노래를 불러 주고 그의 인디언 친구들의 사진과 그들로부터 받은 기념품을 보여 주시곤 하면 어린 초기 시절에 이런 사랑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받은 축복사 축복으로부터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축복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대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나 특히 레이맨인에게 더 많이 전파하라.”

1945년 조지 엘버트 스미스 교회 대관장이 킴블 장로를 사무실로 부르시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디언들을 보살피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버림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인디언을 책임지고 보살피십시오.”

킴블 장로는 인디언을 방문하고 가르치고 축복하기 위하여 수천 킬로미터나 여행하셨다. 그들에게 더 많은 학교가 필요하며 또 원한다는 것을 알고 도와 주려고 노력하셨다. 그들이 병들거나 슬픈 것을 알고는 축복해 주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셨다. 그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셨다.



1947년 인디언 보호 지역에 있는 나바호 인디언에게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했다. 먹을 것이 거의 없었고 따뜻하게 입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킴볼 장로가 교회 복지 위원회에 이야기하여 음식과 따뜻한 의류를 트럭으로 실어 보내졌다. 그러고는 신문사에 전화하였다. 그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자와 사진사 한 사람이 파송되었다. 그들이 쓴 기사가 인쇄되었을 때 인디언 원조대가 조직되었다. 킴볼 장로는 또 수도 워싱턴에 있는 어떤 상원 의원에게 편지를 쓰셨다. 그는 여러 봉사 단체에 편지를 쓰고 원조를 요청하는 팜플렛을 우송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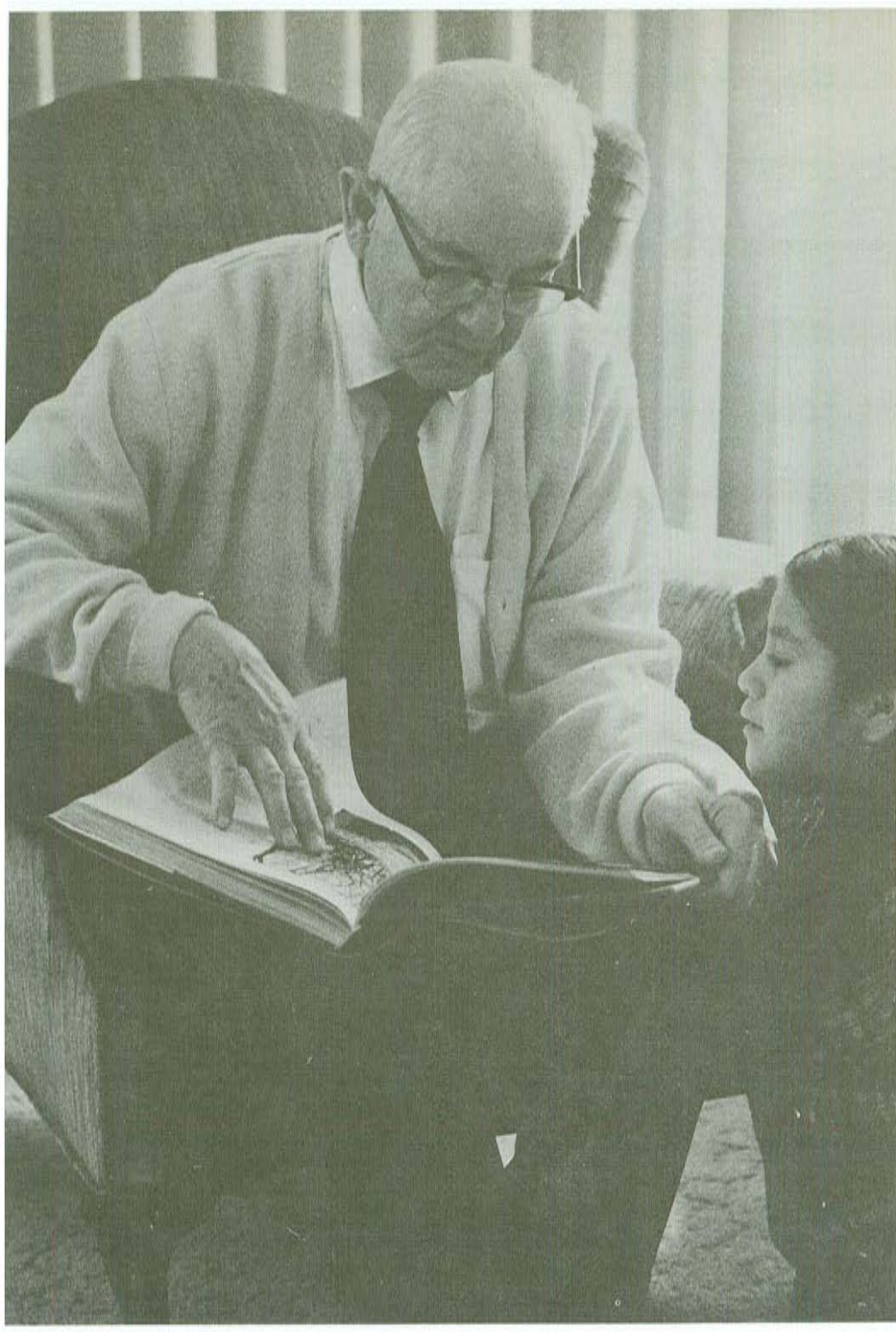
그의 친구들은 도움을 받았으며 감사드렸다.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제는

얼어 죽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킴볼 장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전세계로 여행하면서, 또한 중미 및 남미 태륙과 태평양 군도에 있는 리하이의 자녀를 방문하는 데 수주 인씩 수개월씩 보내셨다. 그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그들의 문제를 도와 주셨다. 그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피로한 적은 없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13:35)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행동을 통하여 그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보여 오셨다. 그를 따르는 것은 항상 "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





리를 브라운 베어가 이렇게 말했다.  
 “네 삼촌 타놀로가 언제 너를 키바로 데려가려고 하니? 나는 너보다 넉 달 늦게 태어났지만 오늘 우리 키바로 갔다 왔어.”

아큐마는 토끼 털옷을 어깨 위로 잡아 당기며 불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연기가 올라가면서 검정으로 덮인 큰 동굴의 지붕을 더욱 더 검게 만드는 것을 지켜 보고 있었다.

그는 슬픈 음성으로 “몰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했어.”라고 말했다.

리를 브라운 베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소년이 키바에 들어가려면 우선 자신이 이제 사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 너 사냥해 보았니?”

“아, 그럼. 우리는 눈을 헤치며 살금 살금 사슴에게 다가가서 그놈을 우리 평평한 산 가장자리로 몰고 갔어. 바로 내 화살이 그놈의 고기를 우리 모닥불에 가져다 준거야.”

리를 브라운 베어는 고개를 흔들었다. “모르겠는데. 타놀로가 너무 잔인해서 너를 놀릴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해.”

아큐마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해야 할 일을 다했던 것이다. 여러 전설을 알고 있었고 화살촉도 잘 만들었으며 유카 나무로 섬유를 만들어서 튼튼한 선들도 만들 수 있었고 활도 잘 쏘았다. 큰 동굴 마을에서 온 그의 삼촌도 이런 것을 다하여 오늘 키바에 갔다 온 것이다.



# 아큐마와 키바

린 게스너

키바 : 프에블로 인디언의 의식용 건축물로서 일반적으로 둥글며 일부는 지하에 묻혀 있다.



이것은 모든 인디언 소년이 바라고 사는 명에였다. 그렇지만 아큐마는 갈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가 잘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셨으나 타놀로는 그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인디언 소년을 키바로 데려갈 수 없었다. 소년이 태어날 때 그를 가르칠 삼촌이 정해지며 바로 이 삼촌이 그를 키바로 데려가야 한다. 여기에 가면 어른이 되기 위한 의식을 거치게 된다. 아큐마는 사촌 리틀 브라운 베어를 훔쳐 보며 그가 자기 마을의 키바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야기에 쓸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비밀이었다.

리틀 브라운 베어가 그의 동굴 마을로 떠난 다음 아큐마는 벌떡 일어나서 그의

갈색 개를 불렀다. 그는 토끼털 담요를 벗어 던졌다. 이제 그는 달릴 것이며 그의 몸은 겨울날에 열이 날 것이다.

“나는 그 바보같은 포페타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겠다.”라고 외치고는 토끼를 쫓기 위하여 달려갔다. 어쩌면 던지는 작대기로 한 마리를 죽여서 자신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삼촌에게 보일 것이다. 그들이 아래에 있는 시냇물을 향하여 계곡 옆으로 급히 달리는 동안 아큐마의 개도 그의 옆에서 달렸다.

개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서 발을 멈추었다. 포페타가 그 가파른 계곡 벽으로 동굴까지 가져 갈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같은 나이였으나 작게 보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

쪽 다리를 절기 때문에 옥수수 밭을 잘 갈 수 없었으므로 그의 가족은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빨리 썰 수 없었으므로 새 담요를 만들기엔 충분한 수의 토끼를 잡을 수도 없었다. 포페타의 털고 있는 어깨 위에 걸치고 있는 담요는 몹시 낡았다.

포페타는 깜짝 놀라면서 “너는 담요도 걸치지 않았구나. 이렇게 추운데.”라고 말하며 이를 덜덜 떨었다.

아큐마는 그의 갈색 어깨를 골게 폈다. “나는 사나이야. 춥지 않아.”라고 뽐내면서 “지금 달려가서 저녁거리 토끼를 잡을꺼야.”라고 말하고는 달려 나갔다.

포페타는 무거운 물둥이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에서 담요가 떨어졌다. 그러자 갈색의 개가 즉시 그것을 입에 물고 가시가 많은 덤불 속으로 질질 끌며 도망갔다.

포페타는 “돌아와, 돌아와. 내 담요는 그것 하나뿐이야.”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아큐마를 쳐다보았다. “너의 저 못된 개가 내 담요를 훔쳐 갔어. 가서 가져 와.”

그러자 그녀는 점점 더 심하게 떨며 머리에 물둥이를 이고 계곡의 벽을 기어 올라가면서 울기 시작했다.

아큐마는 개를 찾으려 했으나 담요를 끌며 이미 계곡을 내려가 버렸다. 찢어진 담요 조각이 덤불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달리며 “이제 더 이상 못쓰게 되었어”라고 말했는데 몸이 더워진 것을 느꼈다. 곧 그는 굵은 작대기를 토끼에게 명중시켜 그 측은 짐승을 자랑스럽게 집으로 가져 왔다.

어머니는 불 위에 얹은 뚝배기에 있는 것을 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

리는 국을 끓일 고기가 있단다. 너는 훌륭한 사냥꾼이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렇지만 왜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주지 않니?”

아큐마는 포페타의 불이 있는 곳으로 갔다. “자, 이 고기 가져.” 포페타는 고맙다고 말하고는 “내 담요 찾았니? 그것이 없으면 오늘 밤 덮고 잘 것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했다.

아큐마는 어깨를 움찔하며 “아니, 못 찾았어.”라고 말했다.

그는 그날 밤 맛있는 국을 먹으며 포페타에 관하여서는 잊어버렸으며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걸치고 불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밤중에 추위를 느끼고 토끼털 담요를 좀더 끌어당겼다. 그때 어디선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마 저 바보같은 포페타일꺼야. 항상 울기만 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그는 포페타를 불 옆에서 볼 수 없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페타는 몸이 좋지 않아. 음식과 따뜻한 담요가 필요해. 그렇지만 나는 나누어 줄 것이 없구나.”

아큐마는 별로 관심없이 거 참 안됐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뛰어 나갔다. 그러나 자꾸 그녀가 울던 것이 생각났다.

그는 “내 개 때문이야.”라고 자신에게 투덜거렸다.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더 생각할수록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가 없었다.

그날 밤에는 잘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일어나서 동굴 뒷쪽에 포페타가 자고 있는 어둡고 작은 방으로 갔다. “여기 내 담요가 있어. 이것을 써.”라고 말했다.

포페타는 놀라며 “그렇지만 그것은 나에게 주어도 좋은 그런 네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였다.

아큐마는 “빌려 주겠다.”라고 말하고는 얼른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떨고 있었다. 아이쿠 추워! 그는 너무나 낡아서 잘 덮을 수 없는 낡은 깃털 담요를 찾아 냈다. 자기 방의 바로 구석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면 그 담요로 어느 정도 추위를 막을 수 있었다. 포페타의 말이 맞아——자기 가족의 소유물은 모두 어머니의 소유였으므로 자기 담요를 남에게 줄 수 없었다. 비록 그 담요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지만 어머니 재산이었다.

그러면 포페타에게 하나 만들어 주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여러 날 동안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했으나 토끼를 사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담요 한 장 만드는 데 그렇게 토끼가 많이 드는지 몰랐다. 그는 토끼 고기는 어머니나 포페타에게 주었으며 밤 늦게까지 가족의 기름을 빼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 그는 지친 한숨을 쉬었다. 일은 너무 많고 아무 재미가 없었다. 때로는 그만 두고 싶은 유혹을 받았으나 그 추운 밤 포페타가 눈물 흘리던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일하였다.

그리고 그 짧은 잠자는 시간도 항상 추웠다. 그는 자신의 그 토끼털 담요를 다시 그리워했다.

토끼 가죽을 충분히 모으자 자신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화살촉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했다. 그러고는 자기 사촌의 마을로 담요 만드는 사람에게 달려갔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담요를 만들어 주면 이 훌륭한 화살촉을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해요. 밤이 점점 더 추워지고 이제 땅에는 눈이 있어요.”

곧 담요가 완성되었으며 아큐마는 그것을 포페타에게 가져 갔다. “이거 넌꺼야. 이 담요가 따뜻하게 해줄거야.”

포페타는 그의 담요를 돌려주었다. “넌 참 친절해. 이것은 참 멋진 담요야. 네가 나에게 고기를 많이 가져다 주어서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도 배고프시지 않아.”

아큐마는 당황하여 “네 단지에 고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자기 모닥불 옆으로 갔다.

그날 밤 삼촌이 그에게 왔다.

“아침 해가 뜨면 나에게 와. 이제 너에게 어른이 되게 해줄 것을 배우기 위하여 키바로 갈 때가 되었다.”

아큐마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정말 기뻐요, 삼촌. 그렇지만 왜 지금 같은 때를 택하셨어요? 저는 준비를 갖춘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어요. 화살촉, 유카섬유 만드는 법과 사냥을 할 줄 알아요.” 아버지 타눌로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네가 이제 배운 것을 하나 모르고 있었다. 소년은 놀기만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른은 할 일이 있을 때는 노는 것을 포기한다. 네가 다른 사람을 곤경에 몰아 넣었으므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였고 그것도 불평하지 않고 해냈다. 나는 너를 지켜 보았고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아직 몸은 소년이지만 사나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아큐마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

## 박 병규 전부산 선교부장에게 감사패 전달

1984년 8월 19일 오후 6시 동신학 연구원에서 짝수 달 둘째 주마다 모이는 귀환 선교사 모임에서 박 병규 전부산 선교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날 감사패 전달은 조 인식 장로 부부가 선교사들을 대표하여 전해주었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들며 우정을 나누었다. \*

## 광주 스테이크 자매 결연 (승주군 이음 국민학교)

광주 스테이크는 7월 24일부터 3박 4일 동안 전남 승주군 송광면 이음 국민학교에서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주제로 택한 이번 대회에서는 선교 사업과 순결의 법에 대한 세미나를 비롯하여 지도력 양성, 다양한 체육 활동, 수영, 노변의 모임 등으로 신앙과 우정과 사랑을 돈독히 하는 모임이었다.

특히 대회 장소인 이음 국민학교 학생들이 자매 결연을 맺고 200여권의 도서와 성도의 벗 등을 기증하고 계속적으로 광주 스테이크와 우의를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참석 인원 약 150여 명. \*



이음 국민학교와 자매 결연식 장면

## 서울 서 신학 연구원 중등부 구약 경전 퀴즈 대회

서울 서 신학 연구원에서는 중등부 세미나리에 등록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약 경전 퀴즈 대회를 개최하였다.

6월 29일 북 스테이크 소속의 신촌 와드와 모래내 지부를 시작으로 하여 10월 20일까지 5개 스테이크의 41개 와드와 지부에서 5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와드, 지부 내의 청소년들이 그동안 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겨루었다.

이번 대회에서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의 최 정현 형제와 손 은선 자매로 구성된 팀은 550점 만점에 400점을 기록하여 실시된 지역 내에서 최고 득점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한편 청주 스테이크의 천안 지부에서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세미나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8명의 고 3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 동해 지부 조직 (서울 선교부)

1984년 8월 17일 서울 선교부에서는 모용덕 장로, 박 주현 장로, 이 옥재 장로 그리고 나 태근 장로를 동해시에 보내어 동해 지부를 조직하였다.

이어 8월 19일에는 버틀러 서울 선교부장이 근교에 위치한 산의 정상에 올라 동해시를 위한 헌납 기도를 하였다.

초대 지부장으로는 이 옥재 장로가 임명되었으며 일요일(19일) 첫 성찬식에는 버틀러 선교부장을 비롯한 4명의 선교사 외에는 한 명의 회원도 없었다.

주소 : 동해시 발함동 561-73호 10동 1반 전화 2-3921 \*